

‘광주비엔날레 국제 큐레이터 코스’ 참가美 폴 게티 미술관 큐레이터 나탈리 하렌씨

목포 문태중·고 재광동문회관 개소식

“세계의 큐레이터들에게 광주는 이미 중요 도시”



“언젠가 광주비엔날레의 감독이 되고 싶어 광주를 찾았습니다.” 16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만난 나탈리 하렌(26·Natilee Harren·미국 LA 폴 게티 미술관 어시스턴트 큐레이터)의 야심만만한 포부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의 전시기획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인 ‘광주비엔날레 국제 큐레이터 코스’(큐레이터 코스)에 참가한 그녀는 누구보다도 제3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개막을 손꼽아 기다려왔다. 지난달 24일 시작된 광주비엔날레 국제큐레이터 코스에 참가하면서 이번 디자인비엔날레의 준비 과정을 모두 지켜봤기 때문이다. 미국 UCLA 현대·근현대미술사 박사학위 과정 중인 하렌은 박사 논문 주제를 백남준으로 선택했을 정도로 한국 미술에 관심이 많은 큐레이터다. 한국·미국·이탈리아 등 15개국에서 27명의 수강생이 참가한 이번 큐레이터

코스에서 하렌은 토론과 워크숍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번 디자인비엔날레 준비 과정은 그녀에게 세계 미술의 흐름을 체감할 수 없는 생생한 현장이었기 때문이다. ‘큐레이터코스’의 강사들과 재단 관계자들이 눈여겨 볼 정도로 수업에 대한 열의가 뜨거웠다. 그녀는 “바바라 반데리덴 2008 브뤼셀비엔날레 총감독 등 세계적인 미술계인사들이 강사로 참여해 매우 유익했다”면서 “매일 밤 숙소에서 동료와 토론을 할 수 있어 무엇보다도 좋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녀는 “각국의 신예 큐레이터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한 점은 소중한 자산이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이스타빌에서 큐레이터 심포지엄을 열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녀는 또 “광주비엔날레 국제 큐레이터

코스’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체계적인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전담 부서를 만들어 광주가 각국의 큐레이터들이 몰려드는 새로운 공간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비엔날레에 대해서도 “베니스비엔날레가 자국 중심적이라면 광주비엔날레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실험적인 방법을 찾는 면에서 미래지향적인 비엔날레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편 오는 28일까지 계속되는 ‘광주비엔날레 국제 큐레이터 코스’는 제3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 은병수 총감독, 제8회광주비엔날레마시밀리아노 지오니 총감독, 김선정(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씨 등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사진=위직망기자 jrwi@kwangju.co.kr



목포 문태중·고 재광동문회관 개소식이 16일 광주 산수동 다미빌딩 3층에서 열렸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지원 국회의원·박광태 광주시장·오행원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이원구 조선대 장학재단 이사장·문익수 문태재단 이사장 등 20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 축하했다.

대한생명 광주본부 어린이재단에 후원금 전달



대한생명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최광선)는 지난 15일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를 방문, 후원금 전달식을 갖고 결식아동돕기 후원금으로 319만 원을 전달했다.

‘목포 시민의 상’ 김영자 화백 선정

목포시는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2009년도 목포 시민의 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교육문화 부문 수상자로 김영자(87) 화백을 선정했다. 김 화백은 1993년부터 목포 토박이 모임인 ‘예목회’를 운영하며 후진 양성에 힘을 쏟고 각종 공연을 통해서도 목포의 예술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다. 수상식은 다음 달 1일 ‘제47회 목포시민의 날’ 행사 때 열린다. /목포=임종찬기자 lyc@kwangju.co.kr



광주 출신 세오 국내서 ‘전쟁반대’ 개인전

“전쟁이 남긴 아픈 이야기들을 관객들과 함께 대화하고 싶어요” 광주 출신으로 독일에서 활동하는 세오(32·본명 서수경)가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다. 세오는 ‘사’의 독일식 발음이다. 다음달 10일까지 서울 청담동 마이클 스텔즈갤러리. 2007년 전시에서는 불상과 풍경을 접목한 작품이나, 수련을 그린 작품 등 서정적인 작품이 많았지만 이번 전시의 주제는 다소 무거운 전쟁이다. 가로, 세로 각 250m 크기의 대작들은 모두 ‘전쟁에 대항하여’(Against the war)라는 제목의 연작들로 모두 총이나 탱크, 군인 같은 전쟁 관련 이미지를 담고 있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대 박유진씨 ‘영어 말하기’ 대상

전남대학교는 16일 유아교육과 박유진(22·3학년) 씨가 최근 열린 ‘2009 대한민국 학생 영어 말하기 경시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세계에능교류협회에서 주최한 이번 대회는 참가자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해 2분30초 동안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박씨는 “우리나라의 나이 문화’에 대해 발표해 호평을 받았으며 특히 정확성, 유창성, 발음, 표현력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전남대는 밝혔다. 대회 수상자들은 세계에능교류협



회가 주관하는 국제 홍보행사에 문화 홍보단원 자격으로 참여한다. /제희정기자 chae@kwangju.co.kr

박명성 신시뮤지컬 대표 ‘문화수도와 광주’ 강연

‘뮤지컬계의 미다스의 손’ 박명성(48·서울연극협회장) 신시뮤지컬 대표가 17일 광주에서 강연회를 갖는다. ‘광주 MBC 교양강좌’에 초청된 박 대표는 17일 오후 3시 광주김대중센터 201호 회의실에서 ‘예술 인재를 문화수도 광주로’를 주제로 강연한다. 해남 출신으로 광주 서석고를 졸업한 박 대표는 ‘맘마미아’, ‘아이디’, ‘시카고’ 등 수많은 히트 뮤지컬을 제작했으며 올해 자신의 뮤지컬 인생을 담은 ‘뮤지컬 드림’을 펴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저탄소 녹색성장’ 설명회

박흥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17일 오후 상의 지하 강실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바로알기’ 설명회를 개최한다. /박정욱기자 jwpark@

전남대 평생교육원 특강

임내현 법무법인 로컴 대표(전 광주교감)는 16일 전남대 평생교육원에서 ‘행복하고 성공한 CEO의 삶’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구두 수선가게 수익금 쪼개 결식아동돕기 선행 화제

광주 용봉동 김주술·최영심 부부

광주에서 구두 수선가게를 하는 부부의 아름다운 기부가 세상을 훈훈하게 만든다. 이들 부부의 생활형편도 녹록하지 않지만 “나주고 베푸는 삶처럼 행복한 것은 없다”며 선행을 실천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주인공은 김주술(55·북구 용봉동)·최영심(여·56)씨 부부. 김씨 부부는 지난 10일 북구청을 찾아 자신이 번 수익금 중 10%인 31만2천870원을 내놓았다. 지역 내 결식아동과 소년소녀가정의 지원금으로 써달라고 했다. 이들은 1년에 두세 번꼴로 자신이 번 수익금 10%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북구청에 기탁하고 있다. 지난 4년간 번 기탁금만도 360만 원이다. 김씨 부부

는 5년 전 북구 오차동 통장(統長)을 하면서도 지역 내 불우이웃을 위해 애써 왔었다. 이들 부부는 통장 업무를 보면서 결식아동 등과 인연을 맺게 됐다. 이들의 어려운 삶을 직접 보고 느끼게 된 것이다. 김씨 부부도 슬하에 한 명의 자식을 두고 있다. 이 때 문인지 결식아동 등을 보면 제 자식 생각나는 게 이들 부부의 설명이다. 앞으로도 구두 수선가게를 하면서 번 돈 10%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할 계획이다. 김씨는 “나도 어렵 적 가장 형편이 여의치 않아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어린 아이들이 커서 나와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자식에게도 ‘항상 남에게 베풀고 고맙고 나라사랑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정운천 전 장관 회고록 ‘박비향’ 출간



겪은 정 전 장관이 앞으로 한국 농업에 더 큰 보탬이 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전장관은 고향 출신으로 고려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잡다래유통사업단 대표이사, 한국농업CEO연합회 회장을 거쳐 2008년 이명박 정부 초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이순신대학교총장 이사장을 맡고 있다. <울림> 1만2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지난해 촛불정국과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관련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난 정운천(55·사진) 전 농림식품부 장관이 ‘촛불정국’ 과정에서 경험한 뼈아픈 순간들을 담은 회고록 ‘박비향’(棼麻香)을 최근 출간했다. ‘대한민국의 밑물시대’를 여는 정운천의 회고록 ‘만 부채를 단 책은 정 전 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오르기까지 과정, 이명박 대통령과의 인연, 촛불정국 당시 사측생의 정신으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광화문을 방문했던 뒷이야기, 미국 쇠고기 협상의 내막과 퇴임에 얽힌 비화 등이 실렸다. 책 제목은 정 전 장관이 즐겨 인용하는 ‘불시일면 한철골(不是一番寒徹骨)’ 정두매화 박비향(爭得梅花 撲鼻香)’이란 고사에서 따왔다. ‘추위가 한 번 뱃속에 사무치지 않으면 코끝을 찌르는 매화 향기 어찌 얻으랴’라는 뜻으로 촛불시위라는 ‘추위’를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환축

▲박중채(전남여고 교장)·김자정씨 장남 수영군 김상기·조영애씨 장녀 희정양=19일(토)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신인터빌리 4층(메도리스홀) ▲고무석·여명자씨 장남 영준(바오로)군 윤재선(공정제과 대표)·서덕성씨 장녀 해라(안나)양=20일(일) 낮 12시30분 호남동 성당.

동창·동문회

▲복성중 제17회 동창회(회장 이용철) 월례회=17일(목) 오후 7시 무안백낙지(풍양성당 아래) 062-653-9248. ▲복성중 제18회 동창회(회장 이기오) 월례회=18일(금) 오후 7시 길조(삼부지구) 062-372-3377.

종친회

▲동래정씨 광주·전남 종친회(회장 정한영) 세거지 입향조 현대 순례 행사=19일(토) 오전 8시30분 광주 상록회관 앞 출발. 011-9615-8567.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용 사용할 경우 062-1366. ▲(재)제천 재광 영광군 향우정착회(이사장 이형만) 창립식=25일(금) 오후 6시 북구 동림동 혜천빌딩 7층 사무실. 강대의 사무국장 010-4192-5182. ▲자비선원 명상 무료 지도=학생, 주부, 직장인, 마음의 평화를 원하시는 분. 062-228-7701.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애차별 상담=국번 없이 1331. 우편 방문·광주시 동구 제봉로 광주은행 본점 6층.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을 무료 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자리 바꾸기 등(실버에 한함). 062-365-8228.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무료 상담=보호가 필요한 아동 일시보호 상담. 국내 입양 상

담. 미혼모 상담 및 시설 입소 안내. 062-222-1095.

모집

▲수공예 문화센터 회원 모집=리본공예·비즈공예·한지공예·CA방과후지도사 전문 자격증, 취미반, 창업반 모집(1대1지도), 비즈공예·리본공예는 무료수강. 수공예협회 서부지구지부(구 송원대학 정문) 062-367-1040, 010-7942-6597. ▲14회 광주 인권영화제 자원활동가 모집=기간(10일~24일까지), 일시(11월19일~22일), 전남대학교 융복합문화관 4층 시청각실. 062-529-7576(www.gjhrff.com) ▲동구 전문봉사단 교육생 모집=동화구연·생활속의 철학·춤·부활, 30일까지 교육 후 봉사 가능한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 동구청 보건 소년물 2층 동구자원봉사센터. 062-

228-1365. ▲전통문화 보전 연구회=한문·예절·다도·시조 등 우리 전통문화를 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회원 선착순 모집. 북구 중흥 3동 동사무소 맞은편. 062-268-5588, 011-9440-2512. ▲선원·양어장·양식장 일하실 분 모집=남구 백운동 백운광장 광주은행 365코너 옆, 월급제(일당 10~15만원), 초보자·경험자 우대. 062-681-7770.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일반위탁가정 모집=부모의 질병, 가출, 학대 등의 이유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한 일반위탁가정을 모집. 062-351-1206.

부음

▲한영복씨 별세 송이·아름·초롱씨 부친상=발인 18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9분향소. 062-231-8909. ▲박순례씨 별세 김영석·성석·화석·철민·항남씨 모친상=발인 18일

(금) 학동 금호장례식장 402호. ▲김인호씨 별세 성배(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팀장)·홍배·영배(방송대학TV)·선자·민자씨 부친상=발인 17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11-622-2836. ▲김오심씨 별세 송주찬·주영(I.F.C식품유통)·주학·화란·행란씨 모친상 운동화(나주대 교수)·양희철씨 방모상=발인 17일(목)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노병자씨 별세 문 훈·진·경아씨 모친상=발인 17일(목) 학동 금호장례식장 401호. 062-227-4000. ▲김선동씨 별세 강산·수용·선희·향단·영희씨 부친상=발인 17일(목) 학동 금호장례식장 301호. 062-227-4000.

두번 슬로게 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선진국형 주택시스템 프리드 현대중합상조. 가깝문화 1566-4499